

# 비만우 증후군 (fat cow synclrome)

(일명 임신중독)

포천 한도동물병원

원장 김남성

강산이 두번정도 바뀔만큼 긴 세월을 주사기와 씨름하며 이제는 내손을 거치는 소는 거의다 해결이 되리라 속마음으로 자신을 하며 환축과 접해오지만 해가 지날수록 새로운 질병과 씨름하게 되니 의학이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도 발전해 가는 모양이다.

예전에는 소화제나 고창증약 또는 항생제만 갖고도 대부분 치료가 되었으나 요사이는 모르는 질병이 더많은 감을 갖게 되니 안다는 것이 곧 얼마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끼낳고 어미가 잘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는 언제부터 풀도 입에 대지도 않는지, 체온은 어떠한지, 분변은 어떤 형태로 누는지 등을 물은 다음 산과나 내과 질환으로 압축을 해가며 산후질환, 유열, 케토시스, 유방염 4위전위 등 쉽게 병명을 혼자 짚어가면서 약을 챙겨 목장에 가서보면 진단상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치료는 잘되지 않으며칠 씨름하다 축주와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되는 질병을 요즈음 자주 보게 된다. 즉 비만우 증후군(Fat Cow Synclrome)이라고 하며 일명 임신중독증이라고도 한다.

## 원 인

임신기간중 살이 너무쪼든 소가 임신 말기부터 분만 직후에 걸쳐 갑자기 에너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과잉축적된 체지방이 간으로 동원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지방조직이 분해에 의해 혈중에 대량 방출된 지방산이 근육이나 말초 조직에 운반되어 활동 에너지로 이용되지만 이들이 간과 신장에도 축적이 되며 이때 다량의 케톤체가 발생되어 지방간을 비롯하여 많은 장기(臟器)에 심한 기능장애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이 병은 특히 미국의 사양방식인 유도사양

(Challenge feeding system) 즉 분만 2~3주 전부터 농후사료 다급(多給)을 시작하여 분만 후의 고(高)비유기에 사료량을 최고로 하도록 계획된 사양형태) 방식에 의해 사육되는 소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마른 소에서는 이병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증상

체온, 맥박, 호흡수 등이 거의 정상이며 다만 분변만 그 양이 적고 단단하다.

본병의 발생은 살이 많이 썬 젖소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분만후 수일이내에 발생하며 식욕이 떨어지고 유량이 감소된다. 발병후 5~10일 경

과한 것에는 운동실조, 기립불능에 빠지며 합병증으로 심한 케토시스를 병발하여 쇠약이 눈에 띄며 몸도 바짝 마르게 되고 말기에는 뇨독증을 병발하여 혼수를 일으키며 빈약한 맥박을 하여 10~14일 경과로 본병에 걸린 소의 약 90%가 폐사된다.

### 치료

발견 즉시 지방간, 근육병변, 케토시스 등을 염두에 두고 간장치료제인 판토텐산, 비타민B<sub>1</sub>, ADE, 다량의 전해질과 포도당, 칼슘제 등과 생약으로는 제1위액을 5ℓ정도 투여한다. 그러나 그 예후는 불량할 때가 많은 것 같다.

